

총선 결전의 날... 각당 성적표에 잠룡들 명운 갈린다

역대 선거 총지휘하며 승리 이끈 정치인, 유력 대권 주자 반열에 올라 한동훈, 물음표 펴 기회... 이재명, 독보적 위상 강화... 조국, 입지 구축

‘정통의 여의주’를 품을 자, 10일 결장된다. ‘푸른 용의 해’ 갑진년 22대 총선 결과는 3년 뒤 다가올 차기 대권 주자의 위상과 대선 구도 변화에 큰 영향을 줄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과거 선거를 직간접적으로 총지휘하면서 총선 승리를 이끈 정치인이 유력한 대권 주자 반열에 오르고, 이 같은 동력을 기반으로 대선을 거머쥐는 ‘승리 공식’이 여러차례 확인됐기 때문이다. 실제, 박근혜-문재인 전 대통령이 당안팎의 시련 속에서도 총선을 승리로 가져가면서 당내 입지를 넓히고 대권 승리를 쟁취했다. 이에 따라 4·10 총선 결과에 따라 여야 ‘대권 잠룡’의 희비도 크게 엇갈릴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도 관심사는 거대 양당 수장인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총선 성적표다. 이들은 차기 대선후보 적합도를 묻는 각종 여론조사에서 1위를 놓고 경쟁하고 있으며, 이번 총선을 통해 경우에 따라서는 ‘대세론’을 형성할 수 있을 전망이다. 정치 경력이 짧은 한 비대위원장에 총선 승리는 자신을 따라다니는 ‘물음표’를 지울 수 있는 가

장 좋은 계기가 될 것이다. 이번 총선 기간 한 비대위원장은 야권을 겨냥한 ‘운동권 청산론’ 선거 프레임에 직접 전 대다 각종 정책과 공천 방향을 주도했다는 점에서 그간 나타난 각종 잡음과 문제점이 수면 위로 급격히 떠오르면서 책임론에 휘말릴 수 있다. 총선 결과에 따라 불안한 해소 상태에서 덮어놓았다면 지적이 있는 윤석열 대통령과의 갈등 구도도 재차 부각될 가능성도 있다. 여권 내 다른 잠룡들에게도 이번 총선은 무한 경쟁의 장이다.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재명 사법리스크’를 정조준하며 민주당 이재명 대표 지역구인 인천 계양구에 직접 출격했고, 이 대표를 꺾는다면 유력 대권주자 반열에 오를 수 있다. 서울 동작을 탈환에 나선 나경원 전 의원의 국회 재입성 여부를 주목하는 시선도 있다. 이재명 대표는 이번 총선에서 목표로 내건 ‘과반 의석 달성’과 함께 원내 1당을 지켜내면 독보적 대권주자 위상은 더 강화될 전망이다. 하지만 민주당이 패배해 원내 1당 자리를 내줄 경우 이 대표

는 적지 않은 정치적 타격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공천 과정에서 계파 갈등이 거뒀던 만큼, 총선 패배 책임은 고스란히 이 대표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 또 이 대표의 총선 패배는 야권 잠룡들을 깨우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사법리스크’를 가지고는 있지만, 이번 총선에서 돌풍을 일으키고 있는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의 총선 성적표도 주목된다. 비례정당 투표에서 조국혁신당의 대승이 이뤄질 경우 범야권의 정계개편 등이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조국 대표의 향후 행보도 관심거리다. 아울러 이번 총선 결과에 따라 김동연 경기도지사 등이 긴급호출될 수 있다. 정세균-김부겸 전 국무총리도 총선 현장을 돌면서 힘을 보태면서 자신들의 대권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한편 국민의힘을 떠나 제3지대에서 개혁신당을 차린 이준석 대표도 총선 성적표에 따라 정치적 입지가 갈릴 전망이다. 중도층 표심을 대거 흡수하면서 돌풍을 일으킬 경우 차기 대선에서 다크호스로 떠올라 수 있다. 민주당을 떠나 탈당파를 주축으로 새로운미래를 꾸린 이낙연 공동대표도 이번 총선에 대한 가도는 물론 정치적 생명까지 걸려 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9일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대장동·성남FC·백현동 관련 재판에 출석하며 기자회견을 하던 중 울분을 토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 겸 총괄 선거대책위원장이 9일 서울 왕십리역 광장에서 윤석호 후보 지지 유세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민주당 18석 싸움이 가능할까?

광주·전남 18개 지역구... 정권 심판론 속 국힘 약진 주목

4·10 총선을 하루 앞둔 가운데 광주·전남 지역 선거판의 관전 포인트가 주목된다. 우선 광주·전남 18개 지역구의 금배지를 누가 거머쥘지가 관심거리다. 전통적인 민주당 텃밭인 만큼 민주당 후보들의 강세가 예상되는 가운데 16년 만에 불모지인 광주·전남 18개 선거구에 모든 후보를 낸 국민의힘 성적표에 관심이 모아진다. <더불어민주당 또 싸움이 하나?>=더불어민주당이 지난 21대 총선에서 광주·전남 모든 의석을 싹쓸이하고 텃밭 탈환에 성공한 데 이어 이번 총선에서도 싹쓸이를 할지가 관전포인트로 꼽힌다. 2016년 20대 총선 당시 ‘국민의당 녹색 돌풍’에 광주·전남에서 한 석을 얻는 데 그친 민주당은 2020년 21대 총선에서는 광주 8석, 전남 10석 등 18석 모두를 차지했다. 이번 총선에서는 정권심판

론이 강하게 작용하고 있는데다, 각종 여론조사에서 광주·전남지역 민주당 후보들의 강세가 예상됐던 만큼 민주당 일석 가능성이 점쳐진다. 하지만, ‘비명횡사, 천명형제’라는 공천 논란과 함께 ‘공천은 곧 당선’이라는 점 때문에 민주당에 대한 반감을 가진 지지층도 상당수여서 민주당 후보들의 개별 성적표도 관심거리로 꼽히고 있다. <국민의힘, 불모지에서 약진하나?>=국민의힘은 16년 만에 광주와 전남 18개 선거구에 모든 후보를 내고 총력전을 펼쳐왔다. 특히 보수정당의 기성 정치인들이 아닌 새롭고 참신한 인물을 내면서 광주·전남 유권자들에게 주목을 받았다. 이 가운데 순천·광양·곡성·구례를 선거구의 이점현 후보에 대한 기대감도 상당한 상황이다. 국민의힘 후보들은 호남지역에서 거세게 불고 있는 ‘정권심

판’ 여론에 당황한 기색이지만, 자신들의 소신과 정책을 내세우면서 바다 민심에 다가간 만큼 의미 있는 성적표를 거둘 것으로 내심 기대하고 있다. 선거운동기간 중 한동훈 비대위원장 등 선대원 지도부들의 광주·전남 유세지원은 없었지만, 후보 개별로 하루 24시간을 쫓겨 유권자들과 소통 폭을 넓히고 차량 유세를 통해 막판 지지를 호소해왔다. <소수 정당, 무소속 후보 성적은?>=녹색정의당과 진보당, 새로운미래, 개혁신당 등 소수정당 후보들과 무소속 후보의 약진도 관심사다. 이들 정당 후보들은 민주당 후보에 맞서 자신들의 전통적 지지층 공략과 함께 중도층 잡기에 총력을 기울여 왔다. 특히 전남의 경우 민주당 경선 결과에 반발해 무소속으로 출마하는 후보가 속속 등장하면서 민주당과 맞서고 있어 선거 결과가 주목된다. 전남은 2022년 제8회 지방선거에서 22개 시·군 중 7개 시·군에서 무소속 후보가 당선되는 등 ‘민주당 텃밭’이라는 수식어가 무색한 만큼 이번 총선 결과도 예측할 수 없다는 분석이다. /김해나 기자 khn@kwangju.co.kr

“부정선거 주장, 민주주의 훼손 행위”

선관위 “투표함 CCTV 24시간 공개... 정확한 개표 최선”

노태우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4·10 총선 하루 전인 9일 “일각에서 사전투표와 관련해 사실관계 확인 없이 부정선거를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선거 불신을 조장해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행위이므로 강력하게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노 위원장은 이날 발표한 ‘모두가 꿈꾸는 대한민국을 위해 국민께 드리는 말씀’에서 “선관위는 사전투표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사전투표함 보관장소 CCTV를 24시간 공개하고 있다”며 이렇게 강조했다.

그는 “지난 3월 말 사전투표소 예정 장소에서 불법 카메라를 설치하는 사건이 발생해 불법 시설물 설치 여부도 꼼꼼히 점검하고 관리를 강화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선관위는 유권자가 안심하고 사전투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며 “투표가 마무리된 후에는 국민의 뜻이 담긴 한 표 한 표를 소중히 여기고 정확한 개표가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한 “딱 한표 부족”...이 “투표로 정권 심판”

(동훈) (재명)

여야, 총선 하루 앞 총력전

여야는 4·10 총선을 하루 앞둔 9일 총력전을 펼쳤다. 국민의힘은 최대 승부처인 수도권에서 집중 유세를 벌이면서 국정 안정과 야당 견제를 위한 투표를 촉구했다. ‘개헌저지선(100석) 위기론’을 내세워 지지층 결집을 시도하는 한편 부동층 표심을 겨냥한 읍소 전략까지 병행하는 모습이다.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 겸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은 이날 줄곧 접전지로 분류돼 온 서울 ‘한강벨트’와 야당 강세 지역인 도봉, 강동, 양천, 서대문 지역을 돌았다. 한 위원장은 오전 언론에 배포한 대국민 메시지에서 “어려웠던 선거가 조금씩 좋아지고 있지만 아직도 많이 어렵다”며 “딱 한 표가 부족하다”고 호소했다. 그는 특히 “(야당이) 200석을 얻겠다고 큰소리를치고 있다. 그런데도 저희의 부족함 때문에 이들을 막기 벅하다”며 거야(巨野) 경계 심리를 자극했다. 이재명 대표는 이날 대장동 관련 재판에 출석하

면서 “총 7곳의 초박빙 접전지에서 민주당 후보가 승리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만들어졌다”며 “꼭 투표해 정권 실패를 심판해달라”고 당부했다. 그는 강원 강릉, 충북 보은·옥천·영동·괴산, 충남 서산·태안, 광주·부여·청양, 경기 동두천·양주·연천을, 포천·가평, 경남 진주갑 등 7대 초접전지를 거명하며 “손 닿는 모든 연고지를 찾아 투표해달라”고 독려했다. 녹색정의당은 기존 의석수(6석) 유지와 지지율 회복을 목표로 제시했고, 새로운미래는 의석 목표로 ‘백자지만 10석’(이낙연 공동대표)이라고 밝히며 지지를 호소했다. 개혁신당 천하람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이준석 후보가 출마한 경기 화성성수리에 기대감을 표하며 “3석, 5석, 몇 석으로 시작해도 이 불꽃을 소중하게 키울 것”이라고 밝혔다. 조국혁신당 신장식 대변인은 BBS 라디오에 나와 “목표 의석은 ‘10석+a’”라면서 “더 중요한 것은 비례가 46석인데 그중 3분의 2인 31석 이상을 김건희 특검에 찬성하는 정당들이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오광록 기자 kroh@연합뉴스

제안하면 거절하고!

발견하면 신고하고!

한사람의 보험비로
전국민의 경제부담 줄

보험사기 ZERO

- 고의로 보험금을 노린 생명·신체 훼손 행위 NO!**
- 허위 사고, 허위 진단, 과다 입원 행위 NO!**
- 브로커를 통한 환자 소개·알선·유인 행위 NO!**
- 고의 교통사고, 차량 수리비 과다 청구 행위 NO!**

신고 방법

금융감독원 콜센터
국번없이 1332 ▶ 4번 ▶ 4번

각 보험회사 대표번호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www.fss.or.kr ▶ 보험사기 신고

각 보험회사 홈페이지
보험범죄신고센터

처벌 사항

10년 이하 징역
5천만원 이하 벌금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적용)

신고 포상금

적발 금액에 따라
최대 10억원 지급

경찰청
 금융감독원
 h-well 국민건강보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IAA 한국보험대리점협회